

찬 양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다 같 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찬양 반주입니다.

주 기도문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후 교제 (새해 인사 및 덕담 나누기, 축복과 비전 나눔)

은혜로운 설 가정예배 준비하기

- 1) 차례를 지내는 풍습이 있으나,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 2)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새 출발을 다짐합니다.
- 3) 조상의 삶과 교훈을 기억하고 가족 공동체의 소중함을 경험하세요.
- 4) 순서는 가족들이 나누어 맡으면 좋습니다.
(예: 인도는 큰 아들, 기도는 어머니, 설교는 아버지)
- 5) 예배 후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지난 날 기뻐던 일, 어려웠던 일을 나누고 서로 위해주며 좋은 일은 축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부모님들은 2024년의 소망을 담아 자녀들에게 축복과 덕담을 해주고, 자녀들은 말씀 안에서 새해 자신의 계획과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2024년 설 가정예배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신11:12)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이 즐겁고 희망찬 날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조상의 뜻을 기리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렵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2.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3.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후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393장 반주입니다.

- 3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 4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 5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 6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가장 많이 나누는 인사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아마 '복(福)'에 대한 내용들일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福)'의 개념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복(福)'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진정한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나누어봅시다.

첫째,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이다(3절)

다윗은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생의 참 주인으로 인정하고 의뢰할 때 비로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의 참 주인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각자의 삶의 문제(짐)은 무엇이 있나요? 지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의 중심을 가지고,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안에 더욱 선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주인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성실하게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다(4절)

다윗은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상황과 환경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권면합니다. 올 한해 우리 가정 구성원 모두가 오직 하나님 한 분 만으로도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셋째, 하나님께 나의 걸음을 맡기는 삶이다(5절)

마지막으로 다윗은 5절에서 우리 인생의 참 주인되신 하나님께 '너의 길'을 맡기라고 말합니다. '너의 길'은 우리 삶의 모든 계획, 목표 그리고 방법들을 포함한 모든 인생의 걸음들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우리의 인생은 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모두가 올 한해 하나님 안에서 각자 처한 환경과 상황속에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의 여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